



6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폭행/상해범죄의 57.1%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, 나머지 43.9%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다.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4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0.6%), 직장동료/친구(8.5%), 애인(3.8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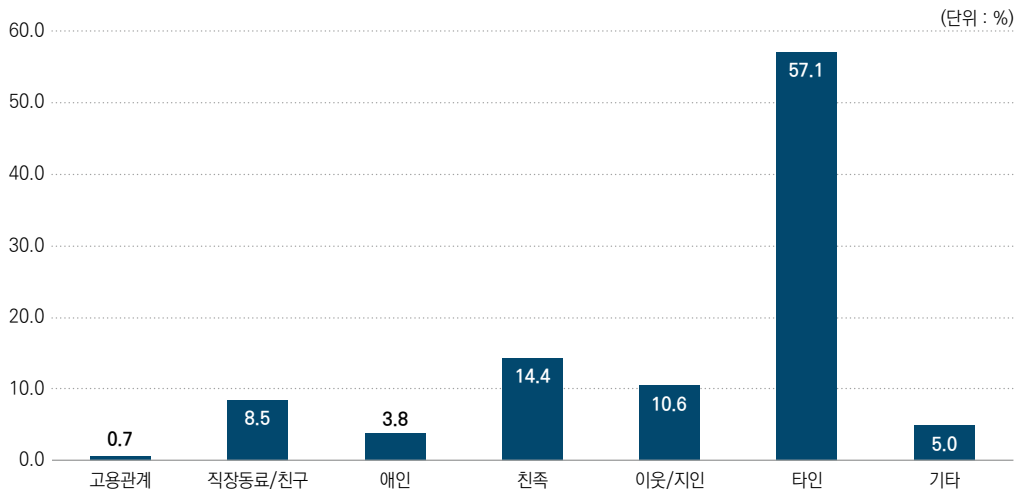


그림 53 폭행/상해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6. 절도

1) 범죄발생시간

- 2017년 총 184,355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중 31.7%가 오후(12:00~17:59)에 발생하였고, 30.7%는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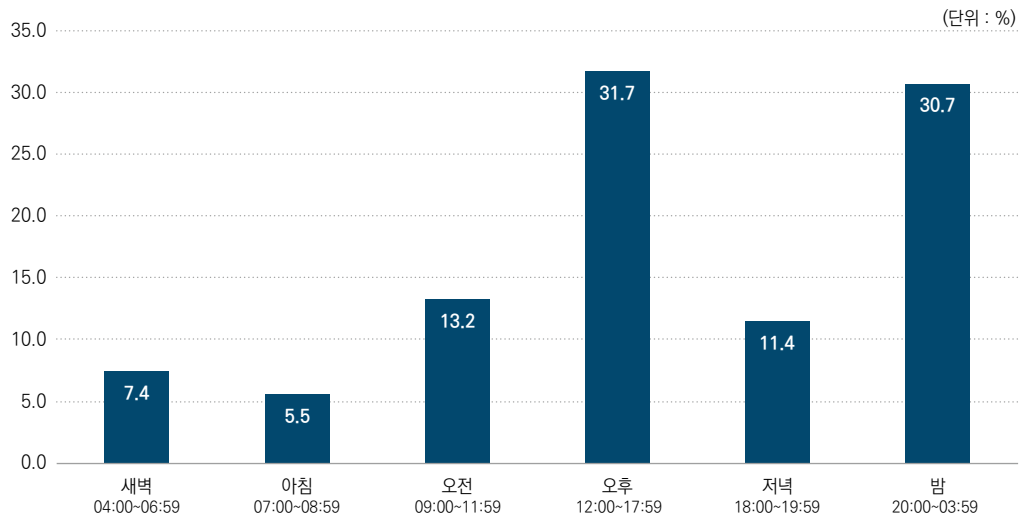


그림 54 철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) 범죄발생장소

- 철도범죄의 발생장소는 기타(46.4%)를 제외해보면, 노상이 20.0%로 가장 많았고, 이외에도 상점 11.9%, 주거지 8.7%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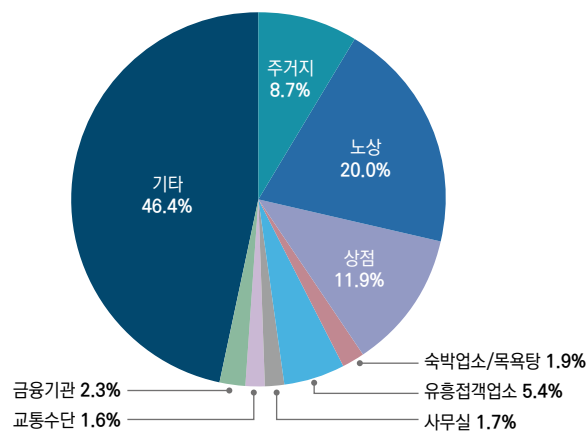


그림 55 철도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

3) 범행수법

- 절도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(72.6%)를 제외해보면, 침입절도가 15.2%로 가장 많았고, 치기절도²⁰ 11.3%, 속임수절도²¹ 1.0%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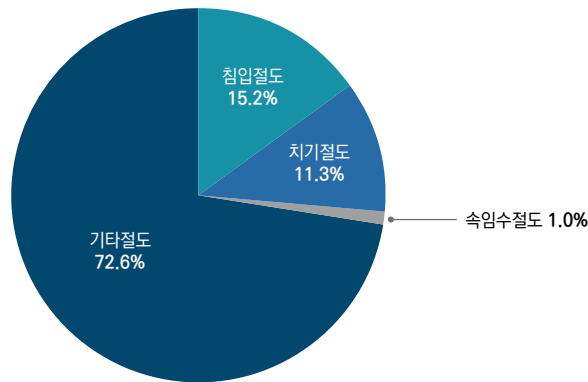


그림 56 절도범죄의 범행수법

4) 재산피해정도

- 절도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살펴보면,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49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1만원 초과~10만원 이하가 25.8%, 100만원 초과가 15.1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전체 절도범죄사건의 84.9%가 100만원 이하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.

20 치기절도는 발생통계원표 상 '소매치기', '날치기', '들치기'의 범죄수법을 의미

21 속임수절도는 전화를 걸어 업주를 밖으로 유인하는 등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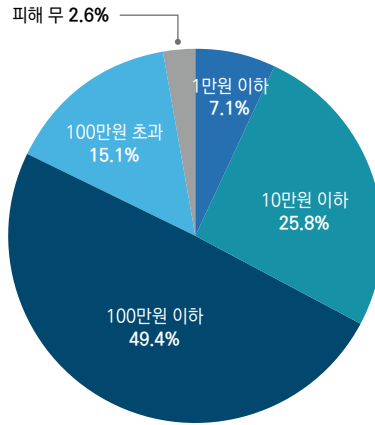


그림 57 절도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정도

5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절도범죄자의 76.2%가 남성이며, 23.8%가 여성이다.
- 절도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9세~30세로 전체의 20.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18세 이하(18.9%), 51세~60세(16.8%) 등의 순이었다. 다른 범죄와 달리 절도범죄자는 30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.
- 절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대는 큰 차이를 보여, 18세 이하와 19세~30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, 41세~50세, 51세~60세, 6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범죄자는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, 여성범죄자는 나이든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였다.



표 34 절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| 범죄자 연령 | 범죄자 성 | | 계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남성 | 여성 | |
| 18세 이하 | 17,389(21.5) | 2,619(10.4) | 20,008(18.9) |
| 19세-30세 | 17,525(21.7) | 4,141(16.4) | 21,666(20.4) |
| 31세-40세 | 10,957(13.6) | 3,279(13.0) | 14,236(13.4) |
| 41세-50세 | 11,581(14.3) | 4,222(16.7) | 15,803(14.9) |
| 51세-60세 | 12,482(15.4) | 5,318(21.1) | 17,800(16.8) |
| 61세 이상 | 10,866(13.4) | 5,666(22.4) | 16,532(15.6) |
| 계 | 80,800(100.0) | 25,245(100.0) | 106,045(100.0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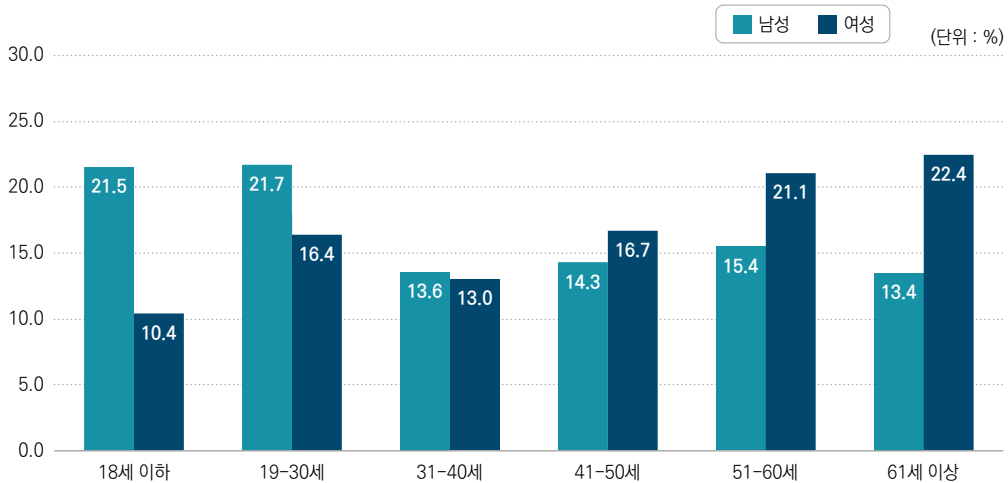


그림 58 절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6) 범죄자의 전과

- 절도범죄자의 60.0%는 전과가 있었다.
- 절도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전과자 비율은 차이를 보여,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40.2%인 반면에, 성인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65.0%로 소년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다.

표 35 절도범죄자의 연령별 전과자 비율

(단위 : 명(%))

| 전과 여부 | 소년범 여부 | | 계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소년범 | 성인범 | |
| 전과없음 | 11,650(59.8) | 26,803(35.0) | 38,453(40.0) |
| 전과있음 | 7,830(40.2) | 49,884(65.0) | 57,714(60.0) |
| 계 | 19,480(100.0) | 76,687(100.0) | 96,167(100.0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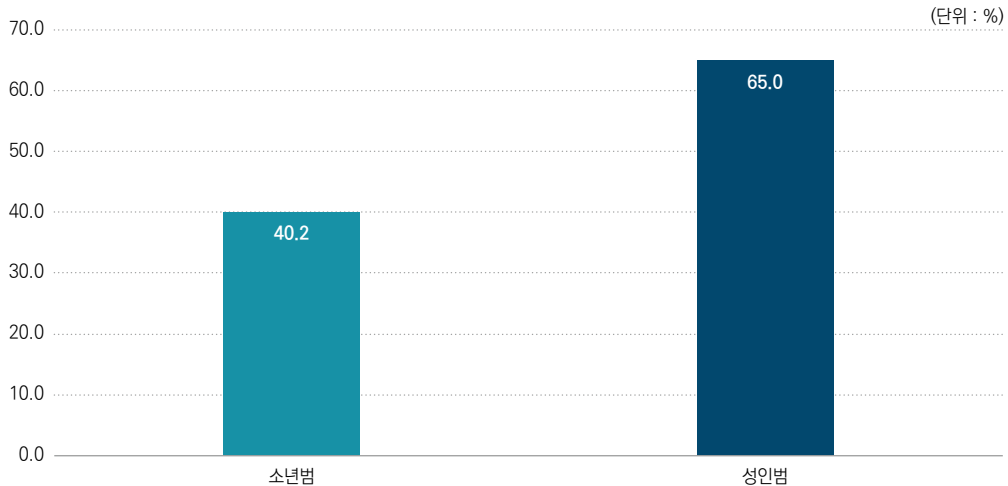


그림 59 절도범죄자의 연령별 전과자 비율

7) 범행동기

- 절도범죄자의 범행동기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, 우발적 동기가 30.8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은 기타이욕(19.4%), 생활비 마련(10.0%) 등의 순이다.
-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호기심/유혹(소년범 20.9%, 성인범 3.1%)에 의해서나 유흥/도박비(소년범 5.2%, 성인범 1.5%) 마련을 위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-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 중 이욕에 해당되는 생활비 마련(6.9%), 유흥/도박비 마련(5.2%), 기타이욕(17.5%)이 29.6%를 차지함에 따라, 우발적(30.8%) 범행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 범행 원인임을 나타낸다.



표 36 절도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

(단위 : 명(%))

| 범행동기 | 소년범 여부 | | 계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소년범 | 성인범 | |
| 생활비 마련 | 1,343(6.9) | 8,224(10.8) | 9,567(10.0) |
| 유흥/도박비 마련 | 1,001(5.2) | 1,118(1.5) | 2,119(2.2) |
| 기타이유 | 3,401(17.5) | 15,149(19.8) | 18,550(19.4) |
| 호기심/유흥 | 4,054(20.9) | 2,333(3.1) | 6,387(6.7) |
| 우발적 | 5,356(27.6) | 24,153(31.6) | 29,509(30.8) |
| 기타 | 4,275(22.0) | 25,423(33.3) | 29,698(31.0) |
| 계 | 19,430(100.0) | 76,400(100.0) | 95,830(100.0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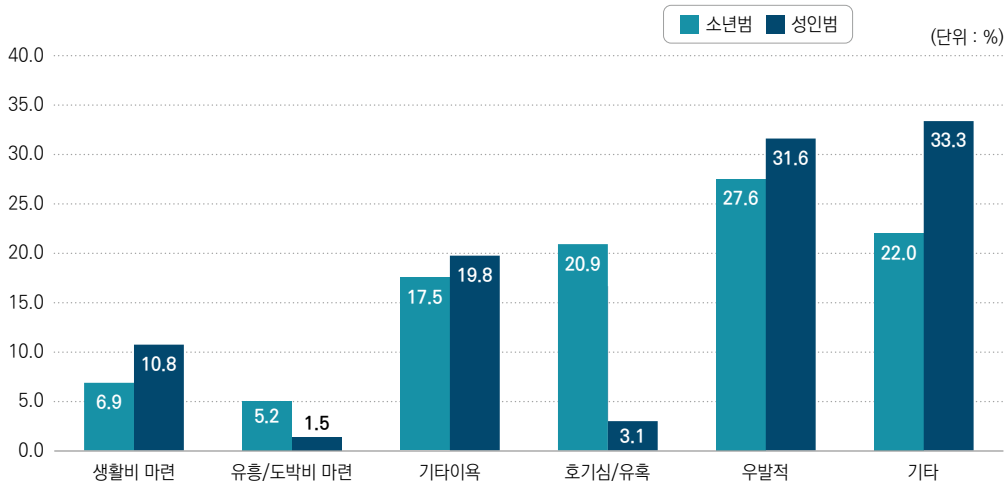


그림 60 절도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

7. 사기

1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2017년에는 총 241,642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.
- 사기범죄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65.6%, 여성이 34.4%였다.